

협치 성북 민간추진단(가) 설명회

- 일시 : 2016.11.16.(수) 13:30~15:30
- 장소 :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
- 진행 : 김기민

<진행 및 논의 과정>

1. 참석자 자기소개
2. 민간 활동 경과보고
3. 기획단 활동 결산

■ 협치서울시민협의회(서울시 시민 주체), 협치서울지역협의회(서울시 자치구 민간 활동 주체들로 구성) 성북구 지역 소통책임자로 김기민, 홍수만 2인을 협치성북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한 민간기획단(이하 '기획단') 구성원의 동의로 선임·파견하였으며, 이후 소통책임자는 기획단 또는 향후 구성될 민민협력 조직 구성원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음.

4. 제안 (진행자)

지난 3개월간의 광역-자치구 차원에서의 민민 협력 및 민관 협치 정책 관련 공유 활동이 있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주체들이 협치가 필요하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확인했고, 공유 활동을 넘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어 향후 활동에 대해 서로 나누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협치성북 민간추진단(가) 확정된 명칭 아니다. 지방정부와 민간 주체들의 협력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하고 협력을 위한 원칙에 대한 논의를 하고 민간이 바라는 협치의 목표,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한다.

5. 논의내용

(질문1)

협치 목적은 무엇인가?

(답)

정책 추측은 어렵다. 지역 활동 경험을 토대로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다. 각자 영역에서 할 일을 하고 있지만 흐름이 바뀌면서 민과 관이 함께 협력 필요함을 느낀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최근 마을계획단에 이르기까지 민관이 협력 추진 배경에는 모든 일은 관만이 할 수 없고, 제도적인 영역으로 끌고 와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제도적인 협치 이야기, 화두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2)

협치를 위한 민간단체 연합 모임을 가지는 이유는?

(답)

민관 단위 다양. 영역별. 영역 안에서도 활동 단위가 많다. 관이 지역 모든 단위들을 개별적 접근하기 어렵고 단위별 요구사항, 협력사항, 개별적 파트너십은 기존에 있었으나,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개별적인 사안 보다 큰 틀에서의 협력 논의를 위해 제도, 정책, 사업 제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질문3)

힘을 만들자는 이야기인가? 민간 연합으로 거대한 힘을 만들자는 것인가?

(답)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민간에서 통합적인 공통된 요구를 했을 때 다를 수 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에서 네트워크 모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질문4)

마을계획단에서 주민참여예산까지. 또 다른 옥상옥이 아닌가? 예산의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내년 주민참여예산제가 바뀌어서 협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포장해서 이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역할인지 모르겠다.

(답)

1.알기 힘들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제정 민주주의 관점으로 넘어가는 구조. 사업 아이템을 올리면 사업 선정하고 다음연도 사업 진행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면 처음 결정되는 단계부터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해만 듣고 있는 상황. 해당 분야, 논의 구조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2.기존의 거버넌스 활동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는 처음부터 제기되었던 문제. 각 다양한 영역에서 있는데, 협치라는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설명을 받고 제안 이해한 내용으로는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것으로 갈 것 이다.

실제로 말 한대로 진행될지 달라질 지는 좀 더 봐야 한다. 민간 영역의 참여가 필요하다. 자치구 차원에서 얼마만큼 배정할지 모르겠으나, 서울시에서는 조례제정을 해서 추진할 예정. 두 가지 사업(시민협력플랫폼 사업 및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 뒷받침할 예정이다. 최대 3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질문5)

마을계획단도 주민들에게 줘서 진행되었는데, 그 부분은 문제이지 않나?

(답)

조례상 서울협치기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서울시장이 의장인 기구까지 설치했는데, 관련 사업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고 예상하기 어렵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 사업들이 잘 연결시켜서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강력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

이라고 생각한다.

(질문6)

주민참여예산과 아울러서 진행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각 동까지 조직을 만드는 것인데, 옆에서 봤을 때 사조직화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 집고 넘어가야 한다.

(다른 의견)

사조직화 우려 염려. 우리가 왜 여기에 앉아있나? 사조직화 안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질문7)

주도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협치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구 발전과 성북구 발전을 위해 모임 활성화는.. 진정한 협치의 목적은 동네가 발전이 좋아지고. 서로가 해결되어지고. 조직으로서 운영되고 협치의 진정한 목적과는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든다.

(다른 의견)

자율방범관을 만들어서 한다고 할 때, 결국 우리가 만든 조직인데, 조직이 안 만들어지면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이 돌아가려면 조직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다른 의견)

이런 논의는 예상 했다. 모이신 사람들은 성북 발전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이다. 계신 분들 훌륭한 분들이다. 동네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그런 논의보다 협치로 인해 만났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구청, 시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장해서 토론회를 가져가고 하계끔 만들자고 모인 것 같다. 그런데, 그 얘기가 그 얘기이다. 몇 번 했지만 협치로 가려면 서로가 잘 모여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이다. 5년간 마을사업, 계획단을 해보았는데 서로 모여서 잘 되게끔 하는 시초이니 마을을 통해서 잘 이끌어서 제대로 협치 해보자.

(답)

협치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왜 어려울까? 민관이 소통이 왜 안 될까? 문제 인식. 그런 관점에서 소통의 틀. 다양한 갈등 문제 해결, 지역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게, 해나갈 필요. 그 수단으로 협치라는 정책을 내세움. 이것이 이 의도가 구현 되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관료사회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예산편성을 먼저 생각한다. 우리 역량에 맞게 진행 할 것인가? 는 결국 우리의 역할이고 기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다.

활동 조직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 공론의 장의 틀을 만드는 과정이며, 기획단조차도 자율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임시 조직이니 협치라는 정책에 대해 알리는 활동의 필요 여부에 따라 기획단 단계에서 이 모임의 역할이 끝날 수도 있다.

(질문8)

협치 조례 성북구에는 존재하는가?

(답)

서울시에만 있고 성북구나 타자치구에도 조례는 없으며, 성북구에서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타구에서 참고 할 것이라 생각된다.

(질문9)

서울시에서는 협치 조정관을 파견했는데..

(답)

협치 조정관직을 신설하고 민간인을 임명했다. 구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이다.

(다른 의견)

단체별로 다모이셨는데.. 이 자리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산이 얼마나 분분하기 전에 조정관이나 모두 모였을 때 대화로 풀어 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다 이야기 된 것이라고 본다.

개인적인 의견은 관철되기 힘들다. 그런데 협치의 자리에 모였으니 단합을 잘 해서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른 의견)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으니, 여기든 어디든 같이 모여서 이야기 됐던 내용이니 협치의 조직을 꾸려야 홍보도 해주고, 전달도 해주고 한다. 예전에는 구에서 하라는 대로 움직이기 마련이었다. 이제는 우리가 관에서가 아니라 민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으니 잘 협동했으면 좋겠다.

(진행자)

선생님 의견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획단에서 결정된 내용은 없으며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획단에서 논의 된 내용을 동의하시는지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다른 의견)

아까 협치, 정책, 현황, 공유 등 이런 말이 좋은 것 같다. 협치 조정관이 생긴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운영하다보니 보건복지부 등 책자가 나오는데 다 읽지 않고 연합회에서 요약해주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정책에 대해 마을 일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있어도 다 알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관에서 주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 하고 필요한 부분을 알게 되고 민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협치에 관한 중간 매개체가 있다면 그 기구가 민의 본부 같은 역할이 되면 모니터링, 조력 단체로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다른 의견)

감사하게 앉아있다 라고 생각. 최근 논의를 이 자리에서 한다면 피로감이 누적. 앞으로 나가는 것에 걸림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지역협의회 소통 책임자이다, 라고 한다면 페이퍼 진

행 요청. 소통하고자 하는 무엇을 소통하고 싶은지 커다란 맥락을 이야기하고 거기서부터 이야기 시작하는 것이 필요. 다음에 제안을 드린다면 그런 수고로움 요청. 결정사항이 아니라면 1시간정도 못되는 시간에 계속 논의의 장이면 피로감이 쌓임.

(진행자)

설명의 목적은 가칭 협치성북 민간추진단을 만들어보고 싶다.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면 가보고 싶다, 라는 의제 하나이고, 말씀하신 방법대로 세부적으로 짜서 구체적인 사항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건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가 다 정해놓고 가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틀을 잡아놓고 따라와 하는 것을 문제의식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무릅쓰고 반대되는 행위 하기 어려움. 이러한 기초, 공감하고 먼저 치고 나가서 제안도 해주고 반대는 어쩔 수 없지만.. 많이 지지해준다면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세부적 채움 가능. 추진단 구성에 대해 의견을 밝혀달라.

(다른 의견)

협치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거버넌스라는 말을 쓰고 있었다. 그전에는 커피집을 하면서 자영업자와 예술가의 경계에 있었다. 마을활동이라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만남. 마을활동 중심 모임은 초기 단계. 2~3년 전부터 공유성북원탁회의 협치 테이블이 존재해있다. 마을과 비슷한 것이 마을에서 느슨하게 천천히 가는 과정. 대신 네트워킹이 되고 정보 공유가 되고 혼자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찾고, 내부 생태계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일거리 몰아줘도 되고. 그에 대해 강요나 강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진행자 제안)

협치성북 민간추진단 모임 결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맥락 배경, 동의를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의견)

기획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오해는 서울시에서 먼저 협치라는 의미 꺼내고, 협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괜찮을 텐데, 사업제안을 먼저 이야기 하고, 사업이야기를 먼저. 거기에서 오해. 항상 끝나면 오늘 무슨 얘기를 정리해야할까 고민했는데, 기획단 회의 때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바라는 협치는 무엇인지. 사업을 위한 협치인지? 민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서울시가 이런 것이 우리의 목소리를 관과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협치를 원하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민관, 민민 사업에 의한 것인지 고민, 이해, 정리 필요. 그 추진단도 마찬가지로 필요성, 방향 수립 필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생각이 다르다. 오늘 추진단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해야 한다. 협치 조정관 뽑았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사업을 위한 기획단으로 보고 있더라. 예산이 나오면 얼른 하고 싶어서.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더라. 추진단은 만들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결정한 것이 없다. 가이드라인도. 협치 단어 하나를 가지고 뛰고 있는데, 그 쪽과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구청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도 중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

(다른 의견)

그것은 정리가 되었다. 1차에 가서 만났는데, 우리는 그 때 당시, 시간이 걸리고 늦어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나서겠다고 했다.

(진행자)

1차 민관협력 회의 때의 상황은 하겠다 라는 발언은 아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고, 모임들이 있는데. 관련된 사업 구체화. 이런 방법을 제안해주었는데,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시간 필요. 올해 연말까지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이후 모임을 통해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를 모여진다면 그 모임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의견)

그것이 문제제기가 되는 것인가?

(다른 의견)

성북구 조례가 생기지 않았는데, 처음 협치에 관해 설명을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그래서 크기가 커졌다. 우리들의 소리를 들어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조례라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우리와 같이 만들어져야 한다. 사업을 떠나 구분이 아니라 처음의 출발점이 사업으로만 던졌기 때문이다.

(구청 답)

조례 부분은 임의로 만들려고 했으면 하면 이미 만들었다. 이 부분은 추진단이 구성되고 성북 회의, 그 분들이 조례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하겠다. 기다리고 있다.

협치성북회의(가)가 구성되고 기능으로는 성북회의가 진행된다고 보고, 보건 복지, 경제 등 성북 여러 다양한 구성들이 모여서 성북회의가 구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3년간 3억씩 지원.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들이다. 민간 실무비, 연구비, 조례 공청회,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본다.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되는 여러 가지 사업. 그 사업 중 민과 관이 같이 결정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들을 뽑아서 토의, 결정하는 기구가 바라는 마음이다.

회의의 연속성 부분도 그렇고, 추진단이 구성되면서 각 주체별로 대표들과 적극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도 있어야 한다. 민간영역 대표와 의회, 예산 편성권 조례 제정권이 있어서 그 분들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총 망라해서 검토해서 열개라고 짜는 추진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행자)

사업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추진하는 목적을 잘 달성하는 수단으로 잘 활용하면 된다.

민 측에서는 사업 중심으로 소개되고 안내되는 듯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의견)

기획단 회의에서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그림을 가지고 페이퍼 상으로 빨리 돌려줘야 고민을 하는데, 기획단에서도 처음 이야기를 들어 아쉽다.

(진행자)

지금 네트워크 구조는 굉장히 늦었다. 일 순위는 아니다. 좀 더 에너지를 쓸 필요. 오늘부터 심기일전해서 결의를 갖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고 탓할 수 없다. 어떤 직위, 보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상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어렵다. 예산은 없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 이 구조가 탄탄하게 갈 수 있겠지만. 느슨한 상태에서 합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이다. 마음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투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질문10)

각 직능단체들과, 각 모임 및 동아리 단체들이 모인 듯한데 직능단체에 각 모임 동아리들까지도 포함된 건지? 기획단의 의견은?

그런 분들이 마을계획단 단원, 자치위원회 연합회, 직능단체 연합회에서는 전혀 오지 않았다. 각 직능연합회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것을 못 봤다. 이것이 협치인가?

(답)

민간 영역에서 협력단위에서 관심 있고 참여 의향이 있으면 참여 가능하다 생각한다.

(구청 답)

행정에서도 이 분야에 맞춰서 보건, 복지, 마을 대표들이 참여할 것이다. 그 분들이 민관협치 참여로 본다.

(다른 의견)

마을에서 다 이야기를 전했다. 지금 전한 반면 온 사람은 이 정도이다. 요청했으나, 오지 않은 것이다. 아직은 처음이니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다른 의견)

공감성, 진정성으로 하다보면, 꾸준히 진행하다보면 오실 수 있다. 계장님이 정리를 안 해주셨으면 소통책임자 분이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해야 한다. 남은 시간 앞으로 갈 수 있는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다보면 오실 것 같다. 추진하려면 로드맵이 있으면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오면 좋겠다.

(질문자 다른 의견)

과연 그들에게 연락이 돼서 이 협치에 대해서 안 왔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마을계획단 단장으로 왔다. 성북구 안에서 많은 협의회 단장들한테 연락이 갔냐는 것이다. 주민자치 위원장들만 만났다는 것이다.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활동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연락을 다하고 그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다른 의견)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모두 다 연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는 그 코드를

잡기 위한 자리인 것 같다.

(진행자)

처음부터 시작할 때 다 갖춰놓고 시작되면 좋은데, 쉽지는 않다. 처음 마을민주주의과를 통해 면담했던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협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 두개 조직 면담을 했다. 그 이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마을민주주의과를 통해 거버넌스 조직에 행사(협치) 내용을 잘 안내해달라 요청 드렸다. 전달을 했는데 오시지 못하는 분들까지 지금 고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 수 있는 만큼 한 다음 모이신 분들 위주로 논의하고 그 이후 과정을 통해 계속 합류할 수 과정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정보전달과정에서 부연드리자면 소통책임자는 성북구와의 소통책임자가 아니라, 협치서울지역협의회 서울 민간 광역단위에서의 소통 책임자로 조금 더 정보를 공유 받을 수는 있지만 성북구청 내 부처의 생각들까지 모두 다 알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협치서울지역협의회에 관련된 소통 담당자이지 구청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마다 체감도와 진행과정이 다 다른데,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서울시 입장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소통 책임자라는 단어로 소통하고 정보를 일단 공유하는 형태로 가자는 의견이다. 그래서 추진단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역할분담도 하고, 권한도 주고 실제 책임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실무 논의 기구를 만들고자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본다.

촉촉하게 진행되기 위한 기구로써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공감하시는건지? 어느 정도 공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는 있으신지, 확인이 된다면 확인된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는 계속 가겠다.

(제안)

진행 과정 중에 제안을 드린다면 공개기법이라고 해서 30초정도로 “예”, “아니오” 정도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행자)

1. 논의의 틀을 확장에서 힘을 갖고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2. 그렇다면 이 구조에 참여해서 활동할 의지가 있으신지? 질문에 “Yes” , “Pass” , “No” 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pass”는 생각 중이라는 뜻도 있다.

(다른 의견)

공감한다. 혁신교육추진단에서는 혁신교육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도 협치와 결합해야 한다고 보고 협치교육의 올해 성과를 협치성북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결의했다. 그 대표로 제가 참석하였고, 혁신교육 추진단 내의 몇 분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일정상 다른 분들이 많이 못 오셨다.

(제안)

준비위원회 성격을 먼저 정해놓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표들만 오는 구조는 폐쇄적이라고 본다. 기준을 정하려면 준비위원회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이다 본다.

(다른 의견)

단체장들을 부른다는 것은 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연락은 전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모임을 가졌다면 이 후 회의록을 만들고 공분을 통해 최소한 회의록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다.

(다른 의견)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의견)

제가 생각하기에 협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 자치력을 키우는 것과 행정에게 분권을 요구해서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본다. 권한에 맞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여러 우려점들이 있지만 성북의 새로운 주민들의 등장은 의미 있는 일이다.

(진행자)

다음 회의 일정은 대화방을 만들어 일정 투표를 통해 잡도록 하겠다. 시간은 1:30~3:30으로 정하고 단톡방에서 일정 공유 하겠다.